http://dx.doi.org/10.5392/JKCA.2016.16.10.701

봉준호 영화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영화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Study on Allegory shown in Bong Joon-ho's Cinema -Focusing on the Cinema "Snowpiercer"-

김성훈
한서대학교 예술학부 영화영상학과

Seong-Hoon Kim(artkim@hanseo.ac.kr)

요약

봉준호 감독의 그동안 영화에 나타난 시선이 국내문제에 국한된 내용이었다면 <설국열차>에서는 세계와 인류,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성서와 신화에 있는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그 의미를 같이한다. 영화에 나타난 감독의 철학적 세계를 기독교적 세계관과 동양의 순환사고로 살펴보고 이야기 구조에서 <설국열차>는 빙하기 이전과 열차에서 보낸 17년의 빙하기, 그리고 빙하기 이후로 표현되어 지고 있으며 이 이야기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탈출 이전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으로 알레고리 되어 있다. 성서에서의 종말은 완전한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봉준호 감독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개된 <설국열차>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감독이 표층 위에 투사한 이미지 아래에 자리한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봉준호 | 설국열차 | 알레고리 | 성서 | 신화 |

Abstract

Perspective of director Bong Joon-ho shown in his movies up to now had been limited to domestic issues but that in the <Snowpiercer> was shifted to the world, mankind, and future of humans. Images exhibited in his movies had the same meanings of many stories in the Bible and myths. The study looks into his philosophical world through the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nd the Oriental circulation thinking; the story of the <Snowpiercer> was expressed in before the glacial period, the 17 year glacial period spent in a train, and after the glacial period; structure of the story was composed of allegory as prior to Israelites' Escape from Egypt, desert life for 40 years, and entrance to Canaan. The end in the Bible does not mean complete collapse but it contains aspiration for new heaven and new earth to open a new era, to make a new promise with the God and to live a permanent life. This study intends to interpret the <Snowpiercer> developed in a quite different meaning of imagination of humans' future from the previous one by the director Bong Joon-ho and to make another different explanation underlying in the image projected on the surface layer by the director.

■ keyword : | Bong Joon-ho | Snowpiercer | Allegory | Bible | Myth |

본 연구는 2016년도 한서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7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03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03일 교신저자 : 김성훈, e-mail : artkim@hanseo.ac.kr

I. 서 론

영화는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공통된 즐거움이다. 영화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의 형태이며 다른 예술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동시에 또한 서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도 하는 새로운 예술이다[1]. 영화는 시각예술로 단순히 보여 지는 일차적 의미 뿐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이차적 의미, 나아가 제 삼의 의미도 분석이 가능하다. 감독들은 관객의 개개인의 성향과 앎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영화세계에 관객을 인도한다.

영화예술은 거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인하여 자본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태생을 지니고 있어서 알레고리와 잘 어울리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영화감독들이 거대해진 제작비로 인하여 제작자들의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알레고리를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그 중 봉준호 감독은 단연 돋보이는 감독 중 하나이다.

봉준호 감독은 단편 <지리멸렬> 이후 2000년 첫 장편 <플란다스의 개>를 필두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에 이르기까지 봉준호 라는 이름을 일반대중의 기억에 강하게 각인시켜왔다. 그의 영화는 단순히 재미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내부에 여러 가지 숨겨진 코드를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단편영화 때부터 그의 영화는 세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세상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살인의 추억(03)>은 미국이 아니라고 결정하면(DNA결과) 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아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고 <괴물(06)>은 권력이 시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압하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마더〉 도 가부장적인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심각히 경고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아버지가 올바르게 살아야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진다는 역설을 하고 있다[2]. 전 세계에 한국영화 감독의 능력을 선언한 <설국열차>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감독의 생각을 많은 코드로 내장해 놓고 있다.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은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와 열차의 굉음을 기본적으로 이미지화 시켜 영화 시작과 끝을 그들에게 의탁한다. 그가 표현한 열차의 개념은 일 년을 주기로 한 바퀴 도는 원의 개념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직선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원의 개념은 동양의 무극사상과 윤회사상으로 알레고리 되어 있고, 직선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시간개념이 알레고리 되어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이 두 가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을 알레고리로 영화의 재미와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개봉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왔고 영화 상연이후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 다투어 자신의 생각들을 SNS상에 쏟아냈다. 오히려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또 다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관객들은 새로움을 찾기에 열을 올렸다.

비평가 정성일은 “영화가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다시 말해 영화와 내가 갖는 시간적인 거리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영화 비평이 시작[3]”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젠 더 이상 <설국열차>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다. 그리고 <설국열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영화와 내가 갖는 시간적인 거리가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즈음 필자가 본 <설국열차>를 말해도 될 듯하다.

봉준호 감독은 지금까지 그의 영화에서 국내문제에 국한된 내용을 다루었다면 <설국열차>에서는 세계와 인류,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시선으로 바꾸었다.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성서와 신화에 있는 이야기와 많은 부분들이 알레고리 되어 있다. 설국열차를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II. 알레고리와 “설국열차”

알레고리(Allegory)의 어원적 의미는 ‘다르다(allos)’와 ′말하다(agoreuein)′의 합성어인 ′allegorein′에서 유

래한 것으로 ’다르게 말하기’, ‘비유적으로 말하기’, ‘다른 것에 대해 말하기’ 등이라 할 수 있다[4].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알레고리의 개념과 현대적인 알레고리의 개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통적 알레고리는 ‘비유(比喩)’의 확장된 형태로 ‘풍유(諷諭)’나 ‘우유(寓喩)’에 해당하는 말로서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가진 이중적 이야기 유형을 지칭하며 대개의 내용이 교훈적 이다. 또한 전통적 의미의 알레고리는 철학과 신학에서 비롯한 삶과 죽음, 관능과 지성, 도덕과 퇴폐 등의 추상적 관념을 의인화함으로써 인간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수반하였다[5].

미국의 문학이론가 폴드만(Paul de Man)이 정의한 알레고리란, 언어의 근본적인 수사적 성질에 의해 의미가 끝없이 치환되어 결정적인 의미에 다다를 수 없는, 혹은 그것을 거부하는 ‘독서불가능성(unreadability)’의 과정이고, 알레고리적 읽기는 의미의 비결정성과 불가능성을 통해 해석을 확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학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aesthetic)’라고 개념을 밝히고 있다[6].

알레고리란 지배적 이념이나 태도와 다른, 배척된 것들을 표현하거나 복원하는데 사용하는 수사학적 방법이자 창작과 해석의 도구이다[7]. 알레고리가 수사학의 영역을 넘어 창작과 해석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성경 텍스트를 확대 해석하여 성경의 계시와 위배되는 고대 시대의 유산들까지도 성경 안으로 수용하기를 원했던 중세시기 부터이다[8].

일종의 수사법으로 볼 수 있는 알레고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동시대를 대변해 주는 문화, 원형적 이미지로서의 신화,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9].

알레고리 해석은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는 독해에서 시작된다[10].

이러한 요소들은 예술적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서 상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므로 영화 예술에 있어서 감독의 상상력이란 그의 작품세계를 차지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 <설국열차>는 2013년 8월 1일에 개봉하여 국내에서만 9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역대 17위에 해당하는 2013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였다. 이 작품은 제목이 영화와 동일하게 번역되어 2004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프랑스 만화 “Le Transperceneige[11]”를 원작으로 한다. 영화이야기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합의하에 화학물질을 발사하는데 그 화학물의 부작용에 의해 지구가 빙하기가 도래하여 기존의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설국열차)가 탄생하여 그 가운데에서 권력자과 피 권력자들의 생존을 그린 이야기로 소개되었다.

이야기 구성은 2014년 7월 1일의 뉴스 보도로 시작되며 그 시대적 배경을 21세기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2014년으로부터 14년이 흐른 뒤로 설정되어 있으나 봉준호는 2014년 현재로 설정하여 본인의 다른 작품들과 같이 현실성과 현재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영화 <설국열차>는 알레고리적으로 현대 사회가 지닌 계급적 모순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12].

영화<설국열차>에 대한 반응은 많은 학계, 영화관계자, 기자, 평론가, 관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영화평과 결말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쏟아냈다.

김남석(2013)은 “한국영화의 제작 방식과 그 영화들”에서 설국열차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도전이자 공존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이질적인 것들은 국내 소모용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과로 다양한 인종들과의 조화로운 연기를 묶어낸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와 스태프의 새로운 조합을 찾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했다.

조흡(2014)은 <설국열차>를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 국면을 지도처럼 그려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적 불안정이 곧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로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슈퍼파워에 기대 안녕을 보장받던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라 말한다. 이 상황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까지 안으로 감춰뒀던 폭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용성(2015)은 <설국열차>라는 시스템을 계급착취

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서 탈 정상과학시대, 위험사회의 시대에서 해방적 사유, 비전의 방식을 다루었다. 새로운 시스템과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 윤리적 비전, 해방적 비전을 설국열차를 통해 성찰하고 있다.

홍상은, 안정오(2016)는 프랑스 기호학자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을 통하여 설국열차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인물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분석하고 영화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가치들을 해석해 냈다.

커티스를 주체로 한 행동자 모델에서 발령자는 길리엄이 되고 대상은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 될 것이며 수령자는 커티스가 되고, 원조자는 남궁민수이며 대립자는 윌포드, 메이슨총리, 앞 칸 사람들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수진(2008)은 영화가 촬영되기 전에 만화를 통하여 <설국열차>가 영화화 된다면 어떤 공간이 설정 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감독과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열차의 외부의 열림과 파멸에 관한이야기를 썼으며 2014년에는 "<설국열차>에 대한 움직임의 영화적 재현"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열차의 정지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로의 전환 그리고 커티스와 프랑코의 서부영화 형태의 총격전에서 열차의 U자 모양에서 형태와 원형의 형태, 직선의 형태를 설명하며 카메라의 테크닉과 기술적 시퀀스를 분석하였다.

박현정(2015)은 <설국열차>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지구적 환경위기, 생명의식, 미래사회 등 미래적 상상력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생태적 이데올로기 담론의 층위에서 논의를 하여 열차 내부의 전체주의, 물, 불, 대지에 관한 마르크스적 생태관, 맬더스의 인구이론, 사회적 다위니즘과 자본주의 메커니즘, 생태파시즘으로 분석하여 영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적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송시형(2013)은 <설국열차>를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법을 기차로 상징되는 폐쇄적 사회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진행되는지를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설국열차>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 같은 현상은 봉준호감독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시선에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봉준호 감독은 발표하는 영화마다 뜨거운 관심과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영화 표층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이야기 외에 그가 영화예술을 통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보는 능력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국열차>도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쏟아져 나온 이유도 보는 사람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성서의 핵심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 민족들의 애굽 탈출과 40년 광야생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기까지의 연대기적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능력과 이스라엘민족과의 언약, 율법, 계명 등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신약에서도 여러 사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다. 특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의 설교는 구약성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 한다[13]. 이러한 성경의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플롯을 <설국열차>에서 알레고리 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III. "설국열차"의 알레고리 시각

봉준호 감독은 그동안 관객들과의 만남에서 보여줬던 영화적 시각에 새로운 선언을 <설국열차>를 통해 던졌다고 보여 진다. 그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면 <살인의 추억>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하여 80년대 민초들의 삶과 권력기관들의 실적위주의 행태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대의 모순적 사회상을 재현하며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공권력의 태도를 아프게 고발하고 있다. <괴물>에서는 괴물이 상징적으로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극 중에 등장시켜 한국사회에서 지배 권력이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와 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통렬히 고발하고 있다. <마더>는 이 땅에 결손가정에 대한 그들의 삶은 이 사회가 어떻

게 포용하고 있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시선과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올바로 서야 이 땅의 슬픈 일들이 발생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선언했다.

<설국열차>는 지금까지의 작업과는 차원과 가치관이 다른 작품으로 영화 내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영화의 배경은 가상공간이며, 다양한 인종이 등장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성서가 세계사를 통틀어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오랜 역사서임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

1. 동양의 순환사고와 기독교적 사고

동양의 사상은 우주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 우주적 차원의 본질로서 인간과 자연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중국 철학의 근간이 되는 유, 도, 불 3교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14]. 도교의 노장사상에서 장자는 무극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적 무한성을 무궁이라는 시간적 무한성을 말함으로써 유가(儒家)의 세계 개념인 천지의 울타리를 헐었다. 노자는 순환적인 변화,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얻은 성찰로서 항상 생성하는 자연의 모습 즉 가시적으로 잠시 존재로 보이는 세계의 모습을 비가시적, 정신적 체험적인 영역의 생태계로 관조한 지혜로 여겼다. 도(道)는 반전의 인과적 윤회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요소의 집합 범주를 확대시키는 변형하는 변이(變異)를 본성으로 하고 있다[14].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는 초기와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윤회의 사고를 갖고 있다. 즉 세계를 끝없이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반복으로 본다[15]. 이것이 순환적 시간관이다.

<설국열차>에는 성서적 상상력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내재 돼 있으며 시공간의 순환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순환구조는 기본적으로 열차의 운행과 관련 있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열차의 궤도는 원형으로 설정 되어 있다. 열차가 질주 할 때 지표면에 깔려있는 레일을 따라 운행한다. 열차가 직선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원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영화에서 열차는 앞으로 질주하고 커티스와 꼬리칸의 사람들도 앞으로 나아간다.

기독교적 사관에서 바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열차와 열차에 탄 사람들처럼 앞으로 나아간다. 구원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4막으로 구성되어 지며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탄에 의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하였고 그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는 사탄과 악의 세력은 영원한 무저갱으로 던져지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16].

<설국열차>의 배경인 빙하기는 성서나 신화에 등장하는 대홍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대홍수와 원인, 과정, 결과가 흡사하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생존자들이 탄 열차를 방주로 표현한다.

영화에서 빙하기는 인간들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소모로 인하여 온실가스가 온 지구를 뒤 덮었고 이것을 인간의 지혜의 산물인 과학의 기술로 온도를 조절하려 CW-7이라는 화학물질을 살포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은 인간들의 욕심과 생태계에 범한 죄악 때문이다. 대홍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악한 것 뿐 임을 아시고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17]. 성서에서의 종말은 완전한 파국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창세기의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설국열차>의 알레고리가 된 시간 개념은 기독교적 시각과 동양의 순환사고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는 시작(창조)은 결국 끝(종말)으로 향한다는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다. 앞으로만 전진하는 열차는 기독교적 구원의 시간관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영화에는 동양의 시간철학을 엿볼 수 있는 설정이 있다. 열차는 직선의 철로를 왕복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출발했던 그 자리를 1년에 한 번 438,000km를 순회하는 것으로 순환궤도 위를 쉴 새

없이 달린다. 열차는 CW-7이 살포된 시점으로부터 17년 동안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

윌포드는 자신이 설계한 설국열차가 완전한 세계라고 믿고 있다. 비록 자신은 늙어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 할지라도 열차와 그 시스템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세계는 무참히 파괴된다. 열차가 파괴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지구 빙하기의 종말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짐을 알린다. 요나, 티미의 인류와 포유류로서 북극곰이 나타남으로서 신 노아시대가 시작됨을 알린다. 성서에서 종말이 완전한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2. "설국열차" 의 이야기 구성

<설국열차>의 이야기 구성은 빙하기 이전과 열차에서 보낸 17년의 빙하기, 그리고 빙하기 이후로 표현된다. 이 이야기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탈출 이전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으로 알레고리 되어 있다. <설국열차>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79개국의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CW-7을 살포한다. 이 CW-7이 오히려 지구의 빙하기를 초래하여 인류의 멸망을 앞당긴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이런 아이러니를 품고 시작된다.

전지전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이 여겨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터 탈출시켜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이다. 성서의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했더라면 출애굽 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

영화에서 표현되어지지는 않았는데 빙하기 이전의 인류의 삶들은 다소 환경에 문제가 있었지만 멸망하지는 않는 삶들을 살았을 것이다.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들의 삶을 불편하게 살다가 인간의 오만한 판단으로 재앙을 맞게 되었다. 지구가 빙하기로 접어들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린 설국열차를 타기 위해서 개개인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혈연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복잡하고 피 튀기는 살벌한 재난을 극복한 결과 열차에 탑승한 선별된 사람들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탈 애굽을 시도하려 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애굽 땅에서는 많은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 바로 왕을 벌하는 한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널리 나타내셨다. <설국열차>에서는 열차를 탄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사건이 된다. 열차를 탄 순간 자신들의 위치가 정해지고 신분이 결정나는 것이다.

<설국열차>는 거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생활의 움직임과 흡사하다. 기차 밖은 영하 80도의 빙하기가 진행 중이어서 열차를 이탈하면 바로 죽음에 이른다. 기차가 폐쇄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에 스스로 올라타 스스로를 공간에 가두어 두고 그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또한 그 가운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층위가 서열화 되어 있다. 이미 전 세계가 멸망, 멸종된 상태이기에 그 어떤 자본의 논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화폐나 경제에 관한 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질서를 외치며 균형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은 맥락에 처해 있다.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즈음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애굽의 경제활동에 필요했던 물품들은 소용없는 것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진행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실제로 이동하면 7일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를 이동한다. 이 거대한 무리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광야에서 기진해 죽음을 당 하던가 인근의 타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차가 진행하여 앞으로 가듯이 무리에 휩싸여 열려있는 폐쇄공간에서 삶들을 이어간다.

기차 안에 생존하고 있는 인물들의 계층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대제사장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레위족속이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책임지며 일반 백성들과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열차 안에는 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윌포드가 있고 총리 메이슨이 그 뒤를 받치고 있고 특권층과 상류층들이 자리한다. 마지막 꼬리칸에 무임승차를 한 길리엄과 커티스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다.

열차 안에 여러 인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 외에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시절에 같이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까지 이민족과의 전투, 민족들 안에서의 반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이 반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가족들과 장막들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반란은 커티스처럼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항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백성들이 염병으로 14,7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민수기 25장에서도 바알브올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18].

<설국열차>에서는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조장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하여 열차 안의 인원수를 조절하는 만행이 일어난다. 열차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7인의 반란, 맥그레고르 폭동, 그리고 커티스 혁명이 있었다. 조건이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나 물이 쓰거나(마라의 물)[1]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경우(므리바 가데스)[2], 그리고 개인의 신앙(바알브올 우상)[3]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저항이었다. 광야생활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려면 애굽에서 살았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과 민족의 질서와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이다.

<설국열차>에서는 윌포드가 신의 입장을 대변하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여 사람의 목숨을 열차안의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무참히 살해한다. 열차 안에서는 폐쇄된 공간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질서를 강조 한다. 절대 권력의 추종자 총리 메이슨은 앞 칸과 꼬리 칸을 구분 짓는 열차 칸에서 연설은 단연 압권이다.

“신발의 위치는 발이다. 나는 머리이고 여러분은 발이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다. 나는 앞쪽 칸에 속하고, 여러분은 꼬리 칸에 속한다.”

그는 열차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모든 탑승객이 균형유지와 자기 신분에 맞는 위치를 지킬 것을 말한다. 이 연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연설이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19].”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지파에서 한명씩 정탐꾼을 보낸다.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데 한결같이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1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3일전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 남쪽 약 75km지점에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여 모세를 원망한 사건.

2 므리바는 ‘분쟁’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중에 식수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장소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행음하며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브올에게 절하고 함께 재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

곳의 주민들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 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 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20].

<설국열차>에서 열차 안의 감방에서 나타난 남궁민수와 요나는 커티스와 그의 무리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한다. 엔진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열차의 옆문을 열어 세상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다. 이 발상과 행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과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 열차 안에서 다른 이들은 눈이 부셔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풍경으로 보이는 얼음, 죽음을 보지만 남궁민수와 요나는 눈과 얼음이 녹아가는 것을 보고 생명의 희망을 본다.

열차에 처음 탑승한 이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식량문제에 직면한다. 커티스가 남궁민수에게 지난날의 처참했던 상황을 얘기하며 자신이 식인을 했고 에드가의 모친을 살해했음을 고백한다. 이 식인의 이야기는 총 3번으로 성서에 2번 기록되어 있고 1번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전쟁사 6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북 이스라엘 제9대 왕인 여호람 왕 때이다. BC 851년부터 841년까지 아람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성중에 양식이 끊기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열왕기하 6:29) 두 번째는 BC 588-586년 남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30개월 동안 포위 됐을 때 굶주림에 시달리던 부모들이 자식들을 잡아먹었다(신명기 28:53-57). 세 번째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110 만 명이 목숨을 잃을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식량 문제가 불거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나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주었고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해주었다. 영화에서는 양식의 문제를 식인으로 해결 하던 사람들이 자기희생(길리엄)을 통하여 자정능력을 갖고 짐승에서 인간으로 돌아온다. 윌포드도 이들에게 단백질 불록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을 토로한다. 열차안의 인물들도 그들이 열차 탑승으로 생명을 구한 것은 잊고 틈나는 데로 스테이크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며 현실의 처지를 불평 한다.

엔진 칸에 도착한 커티스는 심한 갈등에 봉착한다.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길리엄이 윌포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지금껏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던 자기희생을 엔진 칸에서 티미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팔을 희생하며 지도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다. 이 장면은 기독교 정신의 본질인 자기희생과 타인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기꺼이 감수한 사건의 일부를 실천한 것이다. 영화 초반에 길리엄이 커티스와 대화할 때 앉아있는 우편에 한팔 없는 예수상이 걸려있는 것도 이 장면을 예상한 소품이라고 생각되어진다.

3.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는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처음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인류의 마지막을 서술한다. 구약성서가 태초를 강조한다면 신약성서는 종말에 초점을 맞춘다. 태초와 종말은 상호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이해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다[21].

<설국열차>의 결말은 함축적이다. 17년이라는 짧지만 한 나라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굴곡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탈선한 열차가 배를 드러내 설원에 누워있고 요나와 티미가 모피코트를 걸치고 설원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온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처음 인지(認知) 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어린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의복

을 만들어 주셨다.

요나와 티미는 한 번도 대지를 밟아 본 적이 없는 ‘트레인 베이비(Train Baby)세대이다. 이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닌 이유는 애굽에서 잘못된 식생활과 난잡한 성생활, 그리고 우상숭배에 익숙해진 출애굽1세대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원천 봉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대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순결하고 성결한 신체를 보유하고 신앙과 율법,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한 것이다.

<설국열차>에서는 생존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엔진이 멈춰 섰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열차가 파괴 됐다. 이 열차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요나와 티미는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의 선택은 인류의 미래는 백인이 아닌 아시아인과 흑인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아 때와는 사뭇 다른 선택이고 이 선택이 인류의 풍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 구원 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며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동산 같은 곳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된다[22].

비록 설국열차에서는 17세의 소녀와 5세 소년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새하얀 백설처럼 순전하고 인간의 오만과 욕심이 없는 순백의 역사를 써가기를 소망한다.

IV. 결론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에서 현실 문제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구체성과 사실성 대신 보편성과 알레고리를 선택했다. 성서적인 상상력과 기독교적 신앙관이 그동안의 시선을 세계관으로 변화 시켰다. 열차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엄한 대서사시로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골조로 이야기 구성을 꾸몄다. 성서는 세계사를 통틀어 인간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오래된 역사서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영화의 많은 부분의 모티프를 제공하기도 했고, 전면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는 영화와 친숙한 고전적 아이디어 보고이다.

본고에서 <설국열차>에 나타난 기독교적 사고와 더불어 동양적 순환사고를 영화의 표층에 있는 내용을 알레고리로 설명했다. 또 영화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영화 프롤로그가 담고 있는 아이러니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탈 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레고리로 살펴보았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열차 파괴로 인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독의 미래 관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류 종말 이후의 삶이라고 일컬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펴보았다. <설국열차>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며 알레고리라 말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로는 인류의 역사가 환경과의 투쟁의 역사이고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혜와 오류를 반복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또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의 영적 자산은 지금도 새로운 삶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인류들의 지표가 되고 있다.

<설국열차>가 봉준호 감독의 최고의 걸작이라 말 할 수는 없다. 그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영화 기술적으로 내면적으로 점점 새로워지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영화 속에 내재된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에 대해 개인적 사유와 경험, 철학과 세계관에 미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화를 풍요롭게 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불규칙한 조각들로 분할되는 데도 모자이크가 장엄함을 드러내듯이 철학적 관찰은 비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23].”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파편화된 다른 이미지들을 첨가해 표층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그 아래에 알레고리로 나타나는

이미지로 성서적 상상력과 세계관이 내재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의 다음 작품의 행보를 요나와 티미 같은 심정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Keith Cohen, *Film and Fict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61, 1979.

[2] 김성훈, "영화적 행동의 익숙함과 낯섬의 미학 - 영화<마더를 중심으로>," 연기예술연구, No.2, p.7, 2010.

[3] 정성일, "정성일이 설국열차를 본 후," GQ, 2013.

[4] J. Hillis Miller, "The Two Allegories," M W. Bloomfield ed, *Allegory, myth and Symbol*, Harvard University Press, p.356, 1981.

[5] 양보영, *영화 텍스트의 알레고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7, 2005.

[6] 이윤성, *폴 드만의 알레고리론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1998.

[7] 한상언, "<친절한 금자씨>와 역사적 알레고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87, 2013.

[8] 김창환,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알레고리적 미의식 연구*, 연세대박사학위 논문, p.17, 2012.

[9] 양보영, *영화 텍스트의 알레고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2005.

[10] 김수남, "김기덕 감독의 알레고리적 영화작가정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96, 2014.

[11] https://ko.wikipedia.org/wiki/%EC%84%A4%EA%B5%AD%EC%97%B4%EC%B0%A8 위키백과

[12] 강성률, "설국열차가 재현한 계급투쟁이 그렇게 거북한가?," 플랫폼, 통권41호, 인천문화재단, p.59, 2013.

[13] 누가,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사도행전 7장 1절-60절 참조

[14] 이홍규, 동정근, "동.서양 사상의 시간개념에 따른 미술. 음악. 건축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4권, p.63, 2002.

[15] 고익진, *불교의 세계관 이해*, 도서출판 새터, p.22, 1994.

[16] 백금산, *성경과 구속의 역사*, 부흥과개혁사, 2007.

[17] 모세,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창세기6장 5-6절.

[18] 모세,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민수기16장.

[19] 바울,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고린도전서 12장 21-25절.

[20] 모세,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민수기 13-14장.

[21] 김창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처음과 마지막'," 신학사상, 161집, pp.9-10, 2013.

[22] 요한, *성경(개역개정판)*, 기독교서회, 요한계시록, 21장-22장 5절.

[23] Walter Benjamin, *Ursprung des seutscben Trauerspiels*, 1974, 최성만, 김유동 역 , *독일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p.37, 2009.

저 자 소 개

김 성 훈(Seong-Hoon Kim) 종신회원

- 1987년 8월 :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사)
- 1998년 2월 :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문학 석사)
- 199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연출, 광고제작, 3D, 이벤트